

新安의 史蹟, 曾島面 海底 遺物

은 상 오
(향토사 연구 위원)

1.

신안은 1975년 겨울, 우연히 한 어부의 저인망에 걸려나 온 십여 점의 중국 송·원대(宋·元代) 도자기가 발견된 것이 계기가 되어 76년 본격적인 유물 발굴 작업에 착수함으로써 해서 그 어떤 것 보다도 해서 유물로 유명한 지역이 되었다.

이곳이 전라도 어디쯤에 있는 군도(群島)라는 막연한 지리적 추측에 그치는 사람이란 신안 앞 바다에서 송·원대(宋·元代)의 유물이 세상 밖으로 건져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만큼 이곳에서 발굴·인양된 유물들은 국내 고고학(考古學)계는 물론 중국, 일본의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게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해서 유물 발로지로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신안은 일부 허황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사행심(射倖心)을 불러 일으키게 만드는 부작용도 없지 않아 도굴과 밀반출 사례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신안 해서 유물의 가치를 역으로 대변하는 현상이라 하겠다.

송·원시 대에 일본을 왕래하던 무역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전남 신안군 지도면 방축리 도덕도 앞 바다에 가라앉아 6세기라는 긴 세월을 잠겨 있었는데 1976년 10월부터 발굴·인양 작업에 들어가 계속 사업으로 실시되다가 1985년 전체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도덕도 앞 바다에서 발굴 인양된 선박은 宋·元代인 1320년 전후해서 高麗와 日本·中國 北部地를 순회하던 무역선으로 추정”

인양 작업을 끝으로 9년에 걸친 10차례의 발굴 작업은 일단락을 맺었다.

이곳에서 인양된 유물에는 한국의 고려청자를 비롯하여 중국의 도자기, 금속품, 목제품, 식물표본과 일본의 금속품 등이 포함돼 있으며, 공식적인 유물 인양 수요만도 2만점을 능가하고 있고, 도굴군들에 의해 유출된 비공식적 수요도 줄잡아 1만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침몰선 인양 사업은 동양사(東洋史) 연구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중국 도자사(陶磁史)와 당시 교역사(交易史) 등을 규명하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 당시에 발간된 일간지의 내용과 문화공보부 문화재 관리국에서 펴낸 “신안해저 유물”과 그의 자료들의 내용을 참조해 해저 유물의 성격과 침몰선의 인양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2.

발굴 작업이 본격화 되어 하나 둘 작업이 인양되면서 제일 중요한 의문 사항이 된 것은 어느 시대에 어떤 이유로 이곳을 지나던 어느 나라의 배가 침몰하게 됐는가 하는 문제였다.

물론 정확한 연대를 추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그리 손쉽게 추정이 가능한 성질의 것도 아니었다.

그런 이유로 인양된 유물의 특성을 살피거나 이들 물품이 시사하는 성격만으로 연대를 추측해야 했다.

때문에 여러 의견이 비슷하면서도 엇갈린 주장으로 나오게 되었다.

발굴 초기에 해저 유물 발굴 조사단(단장 윤무병)은 인양된 유물에서 추정해 낸 연대를 1331년 전후라고 밝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안군 지도면 방축리 도덕도 해저의 침몰선은 원대(元代) 1331년을 전후해

양자강의 영파(寧波)항을 출발해서 고려와 일본, 중국 북부 지방을 순회하며 도자기를 비롯한 생활 용품을 매매하던 무역선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연대를 추정하게 된 근거는 우선 발굴 인양된 분동(分洞=무게를 다는 저울)에 경원로(慶元路)라는 문자가 새겨져 있으며, 신미(辛未)라는 간자가 새겨진 칠기를 인양함에 따라 판명하게 됐다는 것이다.

경원로라는 항구는 양자강 하구에 위치해 있는 유명한 무역항으로 북송 시대에는 명주(明州), 남송 시대에는 경원부(慶元府)로 불리다가 원대(元代)에는 경원로(慶元路)로 바뀌었고, 명(明) 이후에는 영파항(寧波港)으로 불렸다.

또한 신미년(辛未年)은 1331년에 해당되는 연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선박이 중국 것임을 뒷받침 해주는 단서로는 침몰선 부근에서 발견된 중국계 인골과 항해일지의 내용이 중국을 출발해서 동남아시아를 순회하던 무역선임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선주 겸 선장의 이름이 새겨진 중국식 벼리(綱), 경원로라는 지명이라고 함으로써 침몰선의 정체를 밝히려 했다.

“발굴된 청자는 發色이 아름답고 문양이 선명한 것이 특징이며, 세련미가 있다.”

그런가 하면 이 침몰선은 중국 단독의 무역선이 아니라 韓·中·日 삼국의 성원이 다국적으로 구성된 국제 무역선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견해도 있었다.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해 주는 단서로는 선체에서 일본 칼자루와 칼코 등이 나오므로써 아마도 일본인 선객이나 선원이 타고 있었을 가능성을 추측한 듯하다.

더욱이 일본의 모 가문(家門) 문장이 새겨진 칠기 접시와 나무신(게다)이 나와 이 추측의 가능성을 짙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들이 분분한 가운데 차츰 새로운 유물들이 인양되고, 28t이 넘는 동전의 일부가 판독되고, 선체(船體)에서 당시의 물권(物券)이나 승선권으로 생각되는 목패(木牌)가 발견됨으로써 선체의 연대에 대한 궁금증이 어렵게나마 풀리기 시작했다.

그 목패에는 [至治參年]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는데 지치삼연[至治參年]은 서기 1323년이며, 이 침몰선에 적재된 물건 거의 전부의 하안연대가 1323년이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

물론 어떤 견해가 맞다고 확인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추측과 궁금중에 쌓인 채 학계와 일반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 신안군 지도면 방축리 도덕도 바다 깊이 묻혀 있던 유물은 그 문화적 가치가 높은 말할 것도 없으며, 중국에도 현재까지 보존해 있지 못한 진귀한 유물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학계에는 해양 고고학, 중국 도자기 연구, 당시의 무역 상황 등 많은 의문점 제시와 아울러 그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해 주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어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3.

신안 해저 침몰선에서는 이미 기술했듯이 韓·中·日 3국의 유물이 나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선체가 중국 원대의 무역선이라는 견해로 기울게 되면서 거의 중국산인 청자 가운데 왜 고려 청자 3점이 포함돼 있느냐 하는 의문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고려 청자는 매병(梅瓶)이 하나, 대접이 하나, 탁잔(托盞)의 받침이 하나씩이다.

이들 중 청자음각연당초문매병(靑磁陰刻蓮唐草文梅瓶)은 형태, 유약, 문양으로 보아 12세기 전반의 것으로 보이며, 청자상감운학문(靑磁象嵌雲鶴文) 대접은 12세기 전반의 것으로 보이며, 청자상감운연당문잔대(靑磁象嵌蓮唐盞臺)는 13세기 전반경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연대에 대한 논란과 어떤 이유에서 제작 연도가 각기 다른 고려청자 3점이 포함돼 있는가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고려청자 3점이 포함되어 있는 신안 해저의 유물은 주로 중국의 도자기, 금속품, 목제품, 식물표본, 칠기 제품 등과 일본 것으로 보이는 동경(銅鏡), 칼코, 나무신 등 그 종류와 품질이 다양하여 韓·中·日 3국의 학계에서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 생각된다.

이 무진장의 유물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도자기류로 청자와 백자가 주류를 이루며 그 종류와 형태 또한 각양각색이다.

원대(元代)까지 도자기의 주류는 청자였다고 생각되는데 용천요(龍泉窯)계 청자가 대부분이며, 그 외에는 소량이지만 태토(胎土)가 검고, 유약이 회백색이고, 두꺼우며, 빙열(氷裂)이 있는 것으로 남송시대 관요형(官窯形)의 향로가 있다.

백자는 백자와 청백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강서성(江西省) 경덕진요산(景德鎮

窯産)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되며, 그 외에 복건(福建), 절강(浙江) 등 타지방 요(窯)의 백자와 청자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발굴 인양된 도자기를 분석한 것이다.

이 분석의 기준이 된 것은 물론 도자기의 형태, 유약의 종류, 문양 등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특히 주목할 것은 도자기 제조소가 도자기의 연대 추측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그럼 신안 해저에서 인양된 유물을 각각 그 재질(材質)별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살펴볼 차례가 된 것 같다.

□ 靑 磁

인양된 도자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청자는 그 품질에 따라 우수질계(優秀質系), 양질계(良質系), 보통질, 조질(粗質)로 나눈다.

우수질계청자(優秀質系靑磁)는 유약(釉藥)이 두껍게 발라져 있고, 발색(發色)이 고우며, 문양이 선명한 것이 특징이다.

이 우수질계청자의 그릇 형태는 정병(淨瓶), 화병(花瓶), 향로(香爐), 대접, 수반(水盤) 등이며, 자기들은 기이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들로 문양은 첩화문(貼花文)과 양각·음각문이 새겨져 있으며, 그 무늬로는 모단당초문(牡丹唐草文), 연꽃잎무늬, 당초문(唐草文), 능화문(菱花文) 등이다.

양질청자(良質靑磁)는 그릇 모양이 정제되고 유약이 비교적 두꺼우며, 발색도 고운 면에서는 우수질계청자와 맥을 같이 하는 듯도 보이지만 종래에는 찾아볼 수 없던 그릇 모양의 새로운 면모와 그 곳에서 풍기는 세련미라든가 새로운 문양의 시문(施文), 굽처리의 독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봐서 우수질계청자에서 병모된 새로운 모양의 도자기로 원대(元代) 청자 중에서 가장 세련된 양식이라 생각된다.

그릇의 종류는 화병과 접시가 있는데 화병은 유약이 약간 두껍고 그물 모양의 빙열(氷裂)이 있다.

접시는 유약이 두껍지는 않으나 발색이 곱고 굽에 유약이 칠해져 있으며 굽의 안쪽 바닥에 유약을 깎아 내어 태토(胎土)가 노출된 곳이 있다.

화병에는 음각으로 횡선의 띠가 둘러져 있을 뿐이며, 접시의 안쪽 바닥에는 음인각(陰印刻)으로 연당초절지문(蓮唐草折枝文)이 있는데 그 문양이 크고 문양을 새긴 문양을 새긴 솜씨가 능숙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또한 원대(元代)의 전형적인 청자 접시 형태의 일종으로 여러 가지 문양을 입

체적으로 나타낸 첩화노태문(貼花露胎文)의 화형접시의 첩화노태철반문(貼花露胎鐵斑文)의 일반원형접시, 원형소문(素文) 접시도 양질 청자로 치밀질의 경도 높은 자기이다.

이 자기는 그릇 모양이 정제되어 있기는 하나 굽의 처리가 우수질 청자에 비하여 조금은 거칠다.

화형(花形) 접시의 첩화문은 국화꽃잎 모양이고, 문양에 유약이 칠해지지 않아 태토(胎土)가 노출되 있고, 다른 첩화문 역시 태도가 노출돼 있는데 이중오첩화문(二重五鐵花文)으로 된 중앙에 있는 문양의 화심(花心)에는 청자 유약을 시유하였다. 그러나 신안에서 발굴된 첩화장식문양 중 다른 종류의 청자첩화문은 문양 위에 청자 유약이 발라져 있다.

신안에서 인양한 청자의 95% 이상이 보통질과 조질(粗質) 청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청자들은 그릇의 모양마다 크고 작은 차이, 자기를 굽는 방법, 발색, 문양, 제작 기법, 굽의 처리, 질의 차이, 시유의 두께 등이 종류 만큼 다양각색으로 다양하다.

이 보통 질과 조질(粗質)계 청자는 그릇 모양에 따라 특수 용기와 일반 용기로 구분하였다.

특수 용기는 다시 대형과 소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대형은 양이화병(兩耳花瓶), 능화형양이화병(菱花形兩耳花瓶), 산구병(蒜口瓶), 수반(水盤) 등이 그 예이다.

소형은 양이호(兩耳壺), 단이호(單耳壺), 주자(注子), 하엽개호(荷葉蓋壺), 어형(魚形), 인형(人形), 우형연적(牛形硯滴), 향로, 화분(花盆) 등으로 그 동안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자주 발견이 되던 종류들이다.

일반 용기는 마상배(馬上杯), 잔탁(盞托)잔, 화형잔(花形盞) 주발, 샷갓형 주발, 대접, 접시 등으로 일상 생활에 쓰이던 용기이며, 그 크기는 주로 작은 것들이 많다고 하겠다.

이 보통 질과 조질(粗質) 청자의 문양 표기법은 음각, 양각, 반양각, 양인각(陽印刻)이 있으며 음각과 양각을 공용하는 경우도 있고 첩화분도 있다.

특수 용기의 경우는 양인각시문(陽印刻施文)이 가장 많고, 음각과 양각이 있으며 첩화문이 일반 용기보다 많다.

문양을 새기는 기법도 다양하지만 문양 자체도 자기의 종류만큼이나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는 문양이라고 생각하기에는 힘들겠지만 자기의 멋을 내기 위한 일환으

로 용구형(龍口形)의 고리 받이에 둥근 고리를 매단 것도 있고, 수반에 꽃 모양의 여의두형수식(如意頭形垂飾)이 있는 것도 있으며, 연꽃잎형의 뚜껑이나 화분의 주둥이 부분을 파도처럼 상하로 무늬를 만들거나, 파도처럼 깎아 내는 기교를 보인 자기도 있다.

일반 용기의 문양은 음인각(陰印刻)과 음각으로 새겨진 것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양인각(陽印刻)의 문양이 많으며 첩화문과 양각문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 같은 형태의 그릇에 서로 다른 문양을 새겨 넣은 경우도 있다. 이상의 보통질 조질(粗質) 청자는 유약이 칠해진 상태가 얇고, 다양한 기법으로 여러 가지의 문양을 거의 모든 자기에 그려 넣었으며, 유약을 바른 후 굽의 처리는 우수 질이나 양질 청자보다 훨씬 거칠며 굽다리의 폭이 넓고 둔한 것이 많으며 굽다리 그 주변에 아예 유약이 발라지지 않은 것도 있다.

특수 용기의 경우는 굽까지 유약을 바른 후 바닥을 깎고 거칠게 된 것이 있고 유약을 바른 후 적당히 훑어 낸 것이 있는가 하면 굽의 아래 부분에는 유약이 발라지지 않은 것도 있다.

일반 용기는 자기 전면에 유약을 바른 후 굽 밑을 깨끗이 훑어 낸 것과 적당히 훑어 낸 것이 있으며, 굽 다리 바닥 면에만 시유가 없는 것, 굽 다리 안쪽 바닥 부분에 시유가 없는 것, 굽 다리와 그 주변에 시유가 없는 것, 굽 다리 안쪽 바닥에만 시유가 없는 것 등 전혀 일정치가 않아 대량 생산에 의한 작업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정성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해 보기도 한다.

또한 특수 용기의 경우 큰 용기는 굽 다리 굽이며, 굽이 크고 굽 다리의 폭도 넓으나 그 넓이가 일정치 않다.

작은 용기의 경우는 평평한 바닥도 있는가 하면, 안 굽도 있고 앞 굽 형식을 취한 평평한 바닥도 있다.

이번 신안에서 인양된 자기 중 원대(元代)의 큰 청자화병, 큰 병 등 대형 청자는 몸체를 다 만들고 밑바닥을 제일 나중에 따로 만들어 붙인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또한 큰 향로의 경우도 몸체를 완성시킨 후 밑바닥의 가운데에 구멍을 남겨 놓고 그 구멍에 낮은 통형의 접시 같은 것을 따로 만들어 얹어 놓음으로서 밑바닥의 구멍을 메꾸었다.

때문에 대형 향로의 안쪽 바닥에는 통형 접시 같은 것을 얹어 놓은 것이 있고 바깥 쪽 바닥의 중앙에는 구멍이 남아 있다.

일반 용기의 굽은 굽 다리 굽이 제일 많으나 대체로 거칠고 투박하게 깎아 냈으며, 그 형태는 전혀 일정치 않다. 드물게는 안 다리 굽도 있으며, 그 깎아 낸

수법은 여전히 거칠다.

조질 일반 용기의 접시나 작은 주발의 경우 굽 다리에 시유가 없고 안쪽 바닥에는 둥근 형태로 유약이 발라지지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봐서 번조시(燔造時) 그릇을 서로 포개서 구운 것이 많다는 것을 알려 준다.

그 뿐만 아니라 둥근 굽의 자국이 남아 있어서 포개서 구운 것을 알 수 있다.

드물게는 굽에 유약이 칠해지지 않고 안쪽 바닥에 커다란 자국이 남아 있어 역시 포개서 구워 낸 것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성형(成形)은 큰 그릇은 거의 물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작은 그릇은 거의 전부가 눌러서 만든 압형성형(押形成形)이라 하겠다.

유약(釉藥)이 발라진 상태는 얇고 그 뒤처리도 거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발색(發色)은 비교적 좋아서 양질(良質) 자기와 같은 것도 개중에는 끼여 있으나 거의는 갈색, 암갈색, 황색, 암록색을 띠고 있고 자기의 발색 자체는 전혀 일정치 않다.

빙열(氷裂)은 대부분 없으나 일부 자기에는 크고 작은 그물 모양의 빙열이 있는 것도 있다.

보통 청자와 조질(粗質) 청자는 거의 전부 유약이 얇게 발라져 있으며 청자 발색(靑磁發色)이 굽지도 일정하지도 않다 하겠으나 우수 질과 양질 청자류에 속하는 것은 여러 번 유약을 발라 유약이 두껍고 구울 때도 특별히 정성을 들여 일정하고 완벽하게 구워지도록 배려를 했으나 보통 질과 조질(粗質) 청자는 그 분류 형태에서 일러주듯이 일상 생활에 쓰이거나 값싸게 활용됐던 자기 형태로 한 두 번 시유(施釉)하여 유약이 얇고 대량생산으로 유약이 발색에 별다른 정성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白 磁

신안에서 발견된 백자는 청백자(靑白磁)와 백자로 구분하였는데 표면의 유색(釉色)이 청색을 많이 띠고 있는 것과 얇은 청색을 띠고 있으나 백색에 가까운 것, 옅은 황색, 황색 등의 빛깔에 따라 구분이 된다.

또 청백자는 그릇의 두께가 얇고 그 질의 치밀 도가 백자류에 미치지 못하며 백자류는 거의 전부 그릇의 두께가 두껍고 치밀 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또 한 가지의 분류 기준이 된 것은 청백자의 굽은 작고 굽 다리와 바깥 쪽 바닥 부위의 유약을 대강 훑어 낸 거친 면을 보이고 있으며 자기의 주둥이 부분은 유약을 바른 후 깎아 내고 복번조(伏燔造) 했는데 반해서 백자류는 굽이 크고 굽

다리와 바깥 쪽 바닥 부분에 유약을 칠하지 않은 그릇이 많고 그릇의 주둥이 부분에 유약을 깎아 내지 않은 것으로 구분의 기준을 삼았다.

인양된 백자 중에는 청백자 보통 질이 가장 많아 전체 백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청백자의 보통 질이 가장 보편적인 품종으로 일상 생활에 사용하던 용기였을 것으로 추측하게 한다.

양질 보통 질의 청백자는 그 질이 대체로 비슷하지만 생산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인 정도가 많고 적음에 따라 약간의 질적인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청백자의 수량이 말해 주듯이 수량만큼이나 자기의 종류도 다양하다.

여기서도 보통 질 청자와 마찬가지로 그릇 모양이 큰 특수 용기와 일상 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반 용기로 구분하였다.

특수 용기는 수량이 적고 제작시 정성이 들어 있어 전부 양질이다.

그릇의 종류는 매병(梅瓶), 병(瓶), 당초이소병(唐草耳小瓶), 뚜껑류, 향로, 마상배(馬上杯) 등이다.

문양은 마상 배의 경우 연당초동자(蓮唐草童子) 문양을 첩화로 나타낸 단독 문양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주문양(主文樣)과 종속문양(從屬文樣)이 새겨진 경우 주체가 되는 문양은 반 양각으로 모단문(牡丹文)이 새겨져 있고, 음각으로는 모당초절지문(牡丹唐草折枝文)이 새겨져 있으며 종속 문양은 양각으로 연꽃잎 문양이 있고 음각으로 파초 잎 문양이 새겨져 있다.

굽 다리는 안다리 굽과 굽 다리 굽, 평저(平底)형이 있다.

가마니에서 구울 때에는 가는 모래 위에 그릇을 놓고 구워 굽 다리 밑에 가는 모래가 묻어 있는 것이 많으며 때로는 둥근 모양의 받침을 놓고 구워 낸 예도 있다.

유약을 칠할 때는 대체로 전면에 칠하고 굽 다리 밑의 3면을 거칠게 깎아 낸 것이 있는가 하면 유약을 칠한 후 굽 다리 밑 부분만 훑어 낸 경우도 있다.

성형(成形)은 물레성형과 압형성형(押形成形)이 있으며 압형성형은 상·하를 따로 성형하여 접합한 예가 많다.

일반 용기의 종류는 잔, 작은 주발, 대접, 주발 모양의 접시, 절요(折腰) 접시 등이 있으며 잔은 소문(素文)과 양인각(陽印刻) 문양의 두 종류가 있고 작은 주발은 주둥이 부위에 태토(胎土)가 노출된 것이 있는가 하면 유약이 칠해진 것이 있다.

문양은 소문(素文)인 것과 안쪽 측면에 문양을 넣은 것이 있다.

중간 크기의 주발은 주둥이 부분에 태토(胎土)가 노출돼 있으며 안쪽 측면에

문양이 새겨져 있다.

주발형 접시는 전부 주둥이 부위에 태토(胎土)가 노출돼 있으며 안쪽 측면에 주문양과 종속 문양으로 새겨져 있다.

절요 접시는 가장 자리에 유약을 칠한 후 다시 깎아 내어 태토(胎土)가 노출되어 있다.

작은 굽 다리와 평저 굽이 있으며 모두 바깥 쪽에 양인각(陽印刻)으로 두 줄의 선이 새겨져 있다.

일반 용기의 문양은 전부가 양인각이어서 대부분 음인각과 양각문양이 많은 청자와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때문에 양인각으로만 문양이 된 청백자 일반 용기는 문양이 분명하지 않아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많으며, 주체가 되는 문양은 다양한 반면 종속 문양은 거의가 뇌문대(雷文帶)로 국한되었다.

유약은 굽 다리 굽에는 전부 칠했으나 주둥이는 유약을 깎아 냈고 일부 굽 다리 안쪽 바닥에 유약이 칠해지지 않은 것이 있으며 낮은 굽의 경우 안쪽 바닥에 시유가 없다.

양질의 청백자는 전부가 압형성형(押型成形)에 의해 좌우·상하를 따로 만들어 접합한 것으로 발색이 곱고 양질의 것이다.

그릇의 종류는 받침 있는 당초이소화병(唐草耳小花瓶), 받침 있는 편평소화병(偏平小花瓶), 받침 있는 작은 향로, 봉황 연적, 편평주자(偏平注子), 수우(水牛) 동자연적, 반용이일반형소주자(蟠龍耳一般形小注子), 합자(盒子) 등이 있다.

문양은 모두 양인각(陽印刻)으로 새겨져 있으며 굽은 받침대가 있는 것은 받침대가 굽의 역할을 하고 그 외에는 평평한 바닥이나 평평한 굽이다.

유약은 평저(平底)인 경우 밑바닥에 시유가 없고 받침대 밑에도 시유가 없으며 호형주자(壺形注子)와 소호(小壺)에는 주둥이 부분과 바닥 안쪽 부분에 유약이 칠해지지 않았으며 합자(盒子)에는 뚜껑과 밑쪽의 가장자리와 바깥쪽 바닥에 유약이 칠해지지 않았다.

보통 질 백자는 주둥이 부분이 바깥쪽으로 벌어진 대접들로 그릇의 벽이 두껍고 유약의 질이 조금 거친 편이며, 굽은 죽절형(竹節形)의 굽 다리 굽으로 힘이 있고 유약은 바깥쪽 바닥 부분을 전면에 칠해져 있고 그릇의 주둥이 부분의 유약은 깎아 냈다.

안쪽 바닥의 중앙에는 원이 새겨져 있으며 그 원안에는 음인각(陰印刻)으로 문자를 새겨 넣거나 문자와 문양을 함께 새겨 넣은 것이 있으며 문양만 있는 것이 있고 별 무늬가 없이 소문(素文)인 것이 있다.

조질(粗質) 백자로 바깥 쪽 바닥 부분의 태토(胎土)가 노출된 자기는 그릇 벽이 두껍고 크며 표면 색이 회색, 암회색이며 공기 구멍이 많이 나 있는 조잡한 백자로 그 종류는 삿갓형 주발, 대접, 접시, 호형주자(壺形注子)등이다.

삿갓형 주발은 굽과 그 주변에 유약이 칠해지지 않았으며, 안 쪽 바닥 부분에 유약이 칠해진 것과 칠해지지 않은 것이 있고 태토(胎土)가 노출된 둥근 형의 띠가 있는 것 등 세 가지가 있다.

그릇의 주둥이 부분이 약간 바깥 쪽으로 벌어진 대접도 안 쪽 바닥에 유약이 칠해져 있지 않은 것과 태토(胎土)가 노출된 둥근 형태의 띠가 있는 것 등 두 가지가 있으며 삿갓형 대접은 바깥쪽 바닥 부분과 안쪽 바닥 부분에 태토가 노출되었다.

이처럼 유약이 칠해진 상태가 나쁘고 자기를 포개서 구운 자국이 남아 있어서 조질 백자(粗質白磁)가 막 그릇임을 알 수 있다.

문양은 단순하고 치졸한 편이며, 국화 꽃잎 문양이나 물고기 문양, 연당초문양(連唐草文樣) 등이 음인각(陰印刻)으로 내면 바닥에 새겨져 있다.

굽은 평저 굽과 굽 다리 굽이 있는데 크고 투박하며, 가는 모래 받침 자국이 남아 있으며, 자기의 표면에는 물레 자국이 거칠게 남아 있어 그 거칠고 조잡함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유백색 양질 백자는 표면이 매끄럽고 그릇 형태도 정제되어 부드러운 세련미를 엿볼 수 있다.

유약은 다른 백자 보다 약간 연한 질(質)로 보이며, 표면의 발색(發色)은 부드러운 황색 계통의 미색이며, 유약면에는 그물 모양의 빙열(氷裂)이 있다.

백자의 종류 가운데는 추부계 백자(樞府系白磁)도 있는데 이 계통의 백자는 그릇의 벽이 청백자 보다 두꺼우며 태토(胎土)가 순백색이며, 치밀질(緻密質)인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또한 표면은 모두 매끄럽게 정리되고 단정한 세련미가 있다.

유약도 경질로 빙열(氷裂)이 없고, 연한 청색을 띠고 있다.

이 추부계 백자 중 상품(上品)은 도자기의 주둥이 부분에 유약이 두 번 칠해진 것 같다.

굽 다리는 크고 단정하게 깎았으며, 굽 다리 밑은 수평이며, 단면은 사각이다.

문양은 모두 양인각(陽印刻)으로 나타나 있다.

그릇의 종류는 마상배(馬上杯), 종자(種子), 주발, 대접, 접시 등 모두 일상 용기이며, 이 중에서 대접과 접시는 치밀 질로 유면(釉面)이 매끄럽게 정해진 상품 백자이다.

종자(種子)와 삿갓형 주발, 안쪽이 둥근 형태의 접시는 상품에 가까운 양질이며, 마상배(馬上杯)는 그릇 모양이 유연하고 유약은 청백자와 흡사하다.

문양은 모두 양인각(陽印刻)으로 새겨져 있고 청백자의 일반 용기의 문양을 새겨 넣은 기법이 같다.

굽은 모두 굽 다리 굽으로 단면이 4각이며, 큰 그릇은 약간 바깥 쪽으로 벌어진 듯 높으며, 굽 다리 안팎의 높이가 같은데 작은 그릇들은 굽 다리 바깥 쪽의 높이가 안 쪽 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 굽 다리 밑에 회고 검은 가는 모래를 받쳐서 구워 낸 흔적을 엿볼 수가 있다.

□ 黑釉磁

태토(胎土)에 철분이 함유돼 회색 내지는 흑회색이지만 치밀하고 유약내에 철분이 함유돼 자기를 구운 후 유약의 색이 갈색에서부터 철흑색에 이르는 자기 종류를 흑유자로 구분하였다.

그릇의 종류는 매병(梅瓶), 화분, 주발 등이다.

문양은 매병에만 새겨져 있으며, 주문(主文)은 모단당초문(牧丹唐草文)이고 종속 문양은 국화 꽃잎 무늬와 연꽃잎 무늬이며, 문양의 주변은 음각 선으로 테를 둘렀다.

문양 부위의 흑유액이 밑으로 흘러서 물리게 되어 문양의 밑 부분이 두껍고 진하다.

화분은 청자 화분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주둥이 부분을 파도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 서로 다르다 하겠다.

주발은 주둥이 부분에 청색 유액이 칠해져 있다.

매병(梅瓶)은 전면에 유약이 칠해져 있으며, 안다리 굽이고, 화분은 내면과 바깥 바닥 부분에 유약이 칠해져 있지 않으며 튼튼한 굽 다리 굽이며, 주발은 평평한 바닥 굽으로 태도가 노출된 곳은 베이지 색을 띠고 있다.

이 외에도 유약이 두껍게 칠해져 있고 유약의 색이 철흑색이며, 유약이 두껍게 흘러 내려 결정체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태토(胎土)가 흑회색을 띠고 있는 건요 천목(建窯天目)질 자기와 유약이 두껍게 색이 철흑색으로 광택이 있고 유약이 굽게 밑으로 흘러내렸으며, 태토(胎土)는 거의 베이지 색이고 간혹 담갈색과 암갈색을 띠고 있는 하남계 천목(河南系天目)질 자기가 있다.

이 하남계 천목질 자기의 시유(施釉)는 거의 두 번씩 했는데 그릇의 몸통 아랫

부분에 흑색 유약을 먼저 칠하고 난 다음 자기의 주둥이로부터 몸통 아래 부분에 걸쳐 칠흙의 유약을 두껍게 덮어씌운 듯 칠하였다.

이 외에도 신안 해저에서 인양된 도자기 중에는 유약이 특이한 도자기가 있는데 청자, 백자, 청백자, 흑유자와 구분되는 특수한 소량의 자기가 있다.

균유계(鈞釉系)자기, 연유계(鉛釉系)자기, 백유흑화(白釉系畫)자기, 뇌호청유계(瀨戶靑釉系)자기 등이 그것이다.

또한 초벌구이 상태로 자기를 굽기 위해 만들어 졌으나 미완성 작품으로 생각되는 토기(土器)들이 많이 발견됐다.

물론 토기는 유약이 발라지지 않은 상태의 그릇을 말하는 것이다.

이상의 그릇류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원대(元代)는 청자에서 백자로 이행되는 시기였으며, 청백자의 치밀질 백자(緻密質白磁)로 이행되는 시기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 金屬 製品

신안 해저에서 조사 인양된 유물 중에서 동전을 제외한 금속 제품은 모두 729점에 달하며 종류별로는 용기류(容器類), 동경(銅鏡), 도병(刀柄), 약시(藥匙), 구자(勾子), 촉대(燭臺), 병(瓶), 주발, 장신구 등과 청동제품 제조에 필요한 주석정(朱錫錠=주석 덩어리)을 비롯하여 납덩어리 등 제조되지 않은 광물류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오주전(五銖錢)을 비롯해서 지대통보(至大通寶)까지 각 시대의 동전이 28t이 넘는 막대한 양이 발굴됐다.

특히 지대통보(至大通寶)의 발견으로 하한 연대를 결정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문체의 선박이 원대(元代) 경원항(慶元港)에서 출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금속 제품 때문이라 하겠다.

오랜 시간 해수에 잠겨 있던 동전은 염분 이외에도 패각류(貝殼類), 해양 생물, 해토, 동전의 녹이 엉겨 붙어 원형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였으나 피복 처리 방법(被覆 處理 方法)을 채택하여 복원하는데 주력을 다한 결과 동전의 종류와 연대를 알 수 있는 명문(銘文)의 판독이 가능해졌다.

대부분 동전의 직경은 2.45cm에서 3.6cm까지이며, 그 성분은 동(CU)이 50~80%, 납(Pb)이 15~35%, 주석(Sn)이 6~15%이며, 이외에 소량의 아연(Zn), 비소(AS), 철(Fe), 안티몬(Sb), 코발트(Co), 망간(Mn), 니켈(Ni)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동의 재련 술은 발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동전의 종류는 연대 미상의 오주(五銖), 당대(唐代) 것으로 보이는 개원통보(開元通寶), 당대 건원(乾元) 연간에 발행된 건원중보(乾元重寶), 남당원종현덕해년(南唐元宗顯德亥年)에 만들어진 당국통보(唐國通寶) 송대 태평흥국년간(太平興國年間)의 것인 태평통보(太平通寶), 송대 순화년간(淳化年間)에 발행된 순화원보(淳化元寶) 등 송대의 동전이 다수이며, 금(金)대 정강년간(正降年間)의 것으로 보이는 정강원보(正降元寶)와 대정년간(大定年間)의 것으로 보이는 대정통보(大定通寶), 그리고 원(元)대 지대년간(至大年間)에 만들어진 지대통보(至大通寶) 등이다.

특히 지대 통보는 앞에서 언급했지만 신안해저 침몰선의 연대를 추정하는 귀한 자료가 됐다.

□ 木 製 品

목제품은 대부분 파손된 파편이 인양되었으며, 원형을 그대로 유지한 목제품은 불과 몇 점 되지 않는다.

이 목제품은 대체로 도자기를 넣었던 상자가 분해된 파편이나 목제품에 부착한 조각 장식품, 젓가락 파편, 칠기 파편, 칼자루 등 각종이었다.

이런 목제품 중 귀중한 유물로 꼽히는 것은 목제 보살상(木製菩薩像)이다.

이것은 양쪽 팔 부분이 떨어져 나간 상태로 인양되었으나 목제품 중 가장 원형 유지가 잘 돼 있는 것 중에 하나이다.

“목제품(木製品) 중 귀중한 유물로 꼽히는 제품은 보살상(菩薩像)은 눈을 지그시 감고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으며, 얼굴 가득히 자비의 빛이 감돌고 있다.”

칠(漆)이 입혀진 이 목제 보살상(木製菩薩像)은 칠이 떨어져 나간 부분이 많으나 원형에 가까운 상태로 인양되었다.

몇 겹으로 주름이 잡힌 상의(裳衣)를 걸친 입상(立像)의 보살은 눈을 지그시 감고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으며, 얼굴 가득 자비의 빛이 감돌고 있다.

팔 위쪽에는 못 구멍이 3, 4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얼굴, 목체, 상반 부분

은 통나무를 깎아서 조각하고 양쪽 팔은 따로 만들어서 못으로 부착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외에도 빗살 사이가 넓고 문양이 새겨진 장식용 빗이 있는가 하면 눈금과 눈금 사이가 약 2mm 정도로 촘촘한 저울대도 있다.

이 저울대는 '大吉'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거의 원형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이밖에 목제 원통형함, 목제원형함, 주판알 등이 발굴 인양되었다.

4.

이상과 같은 다종 다질(多種多質)의 특수하고 진귀한 유물들이 인양되고 있을 때 다른 측면에서는 침몰선의 인양 문제로 많은 연구와 방향 모색을 시도하고 있었다.

6세기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바다 밑에 잠겨 있던 침몰선은 중세기 동양 무역 선체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풀어 줄 귀중한 자료로 사학계 뿐 아니라 고고학, 조선학(造船學)계 등 전세계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때문에 선체 인양의 가능성 타진을 위해 1976년부터 2년에 걸친 준비 작업이 시작됐다.

당시에는 배에 실린 각종 유물을 모두 건져 올리면 선체 인양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그러나 선체 인양에 대한 가능성 만큼이나 많은 난점을 안고 있었다.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도덕도 해저의 침몰 지역이 조수가 빠른 갯벌이어서 수중 시계(視界)가 거의 0에 가깝고 작업 가능 시간도 하루 1~2시간밖에 되지 않는 자연 환경 적인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그때까지 우리 손으로는 한 번도 고대 침몰선을 인양한 적이 없어 경험과 방법에 대한 비 전문성이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안해저 유물 조사 관계자들은 그때까지 있었던 외국의 예를 살펴봄으로써 해저 침몰선의 인양 방법을 다각도로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그 중에 인양 시기는 1년 중 가장 물살이 잔잔한 5~7월을 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완벽한 인양 작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발굴 장소 5m 이내에 발굴 작업선을 계류(繫留)시켜 1천와트 밝기의 전구를 선체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쳐 놓은 뒤 적외선 투시용(赤外線 透視用) 카메라를 부착한 수중 T·V를 통해 작업을

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 의견은 신안 해저의 시계(視界)가 비록 제로 상태에 가깝지만 1천와트 전구를 켜 놓고 안개 속의 물체까지 투시하는 고성능의 적외선 투시용 T·V를 동원한다면 매몰된 선체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수차에 걸쳐 수중에서 사진 촬영과 비디오 촬영이 시도됐으나 물살 때문에 고감도 촬영 기법도 전무한 성과로 끝나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그때까지 유물 인양 작업에 사용되던 원시적 기법인 잠수사들의 손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잠수사들은 잠수 선체의 윤곽을 정확히 조사하여 적하물(積荷物)과 침몰 선체의 파편 등 인양 물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데 큰 몫을 담당했다.

79년부터는 예비 조사 단계로 들어가 선체 인양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사 작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 수중에 드러난 침몰선의 상부는 부식되어 없어지고 3m 두께 정도의 갯벌에 파묻힌 하부는 부식되지 않은 채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선체의 머리와 꼬리 부분은 붕괴되어 흩어져 있으며 선체는 간격이 일정치 않은 7개의 횡격벽(橫隔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외에도 선체 횡단면이 V형을 이룬, 침저형선(尖底型船)이며, 단면이 4각형인 방형용골(바닥의 중심선으로서 수미<首尾>의 방향으로 통하는 줄기가 되는 부분)이 제일 아래 부분에 있다는 것과 침몰 선체는 해저 평면에 15° 가량 우현(右舷 = 오른쪽 뺏전)으로 경사지게 매몰돼 있어서 우현측이 좌현측 보다 선체가 더 많이 남아 있다는 것, 선 내에서 최심부의 깊이는 2.1m이며, 원편은 단판구조(單板構造)이고, 세로 부분에 홈을 파서 겹쳐 이어나간 홈붙이 클링커이음(Rabbetted Clinker Joint)으로 돼 있는 독특한 구조라는 것을 알아냈다.

이렇게 침몰 선체에 대한 세부 사항 조사가 끝나자 그 다음 단계인 본격적인 인양 작업에 필요한 방법이 문제였다.

앞에서도 기술 했듯이 그때까지 우리는 고대 선체 인양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인양 경험이 있는 외국 여러 나라의 방법을 조사 고안하여 그 중에서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을 채택하는 수밖에 없었다.

선체 인양 방법에는 첫째, 1962년 덴마크의 해안에서 바이킹선 5척을 끌어올릴 때 사용했던 방법으로 선체 주변에 댐을 축조한 뒤 물을 모두 퍼내고 선체를 건져 올리는 방법이다.

이탈리아에서는 네미호(湖)에 침몰해 있던 로마 시대의 유람선 두 척을 이 방

법으로 인양했다.

둘째, 1967년 터키 연안에서 사용하던 방법으로 선체를 부분별로 조각조각 해체하여 인양한 것을 복원하는 방법이다.

셋째는 스웨덴의 스톡홀름 앞 해저에서 1956년 17세기 전함 바사호를 끌어올릴 때 사용하던 방식으로 두 개의 기중선을 띄운 후 침몰선 밑에 와이어 로프를 매서 끌어 올리는 방법이다.

넷째는 수중 기구(水中氣球)를 사용하여 인양하는 방법으로 선체의 밑을 쇠줄로 묶은 뒤 거대한 수중 기구에 천천히 공기를 주입시켜 인양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다섯째, 영국의 메리 로우즈호 처럼 선체를 여러모로 보강하고 그대로 한꺼번에 인양하는 방법 등 외국 여러 나라의 실례를 바탕으로 한 인양 방법이 제시되었다.

“인양된 유물로 미루어 중국 송·원대(宋·元代)의 중국 수출 품목인 도자기였으며, 청자에서 백자로 이행되는 시기였을 것으로 추측”

결국 1980년 3월 19일부터 같은 해 4월 12일까지 김정기(金正基) 문화재 연구 소장, 김재근(金在瑾) 서울대 교수, 조성도(趙成都) 해군사관학교 교수, 천하성(千夏成) 해군해난 구조대장 등 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 고고 조사단이 결성돼 영국, 스웨덴, 터키, 그리스, 미국, 일본 등을 돌아보며 해저 선체 인양의 실례와 보존 현황을 살펴보고 와서는 선체를 부분별로 해체하여 인양한 후 복원하는 것으로 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하여 1981년부터 선체 인양 작업이 시작되어 그 해 선체 중앙 우현측에서 현장판(舷牆板·파도의 내습에 대비하여 여객 선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갑판의 양쪽가에 마련한 장벽) 갑판제, 현장지주 등 18편을 인양했고, 82년에는 용골익판(龍骨翼板), 외판(外板), 격벽판(隔壁板), 늑판(肋板), 격벽 늑골(隔壁肋骨) 등 176편, 83년에는 선체 인양 작업의 종결 단계로 전부(前部) 방형 용골과 그 곳에 연결된 방형 용골수재(方形龍骨首材)가 발굴됨으로써 선체의 인양 작업은 마무리를 짓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선은 완벽한 첨저형(尖底型)의 배로 방형용골(方形龍骨), 용골익판(龍骨翼板), 늑판(肋板) 등으로 구성돼 불필요한 재료가 하

나도 섞여 있지 않은 견실한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첨예(尖銳)한 선두 형상은 정교함까지 느끼게 한다.

완전 복원이 되면 세계적 유물로 주목을 받게 될 이 인양선은 목포 보존 처리소에서 조심스럽고도 정교한 공정에 의해 1990년까지는 완전 복원이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다.

그 때가 되면 6세기라는 긴 세월의 공백을 뛰어 넘어 우리 눈앞에 그 날렵한 몸체를 들어내 선체의 보다 뚜렷한 윤곽과 송·원(宋·元)대 조선 기술의 신비를 풀어 줄 것이다.

5.

1323년을 전후한 그 즈음 중국의 무역 항로 경원노(慶元路)를 출발한 무역선을 우리는 오늘 만나게 됐다.

시공을 초월한 이 만남은 어느 무역항 부두에서가 아니라 바로 신안군 지도면 방축리 도덕도 해저의 갯벌속에서 6세기의 깊은 침묵을 깬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1975년 한 어부의 저인망에 걸려든 몇 점의 宋·元代 도자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 곳의 비밀은 궁금증과 신비를 안고 다음 해인 1976년 10월부터 해군 잠수사들의 손을 빌어 발굴·인양작업에 들어 갔다.

신안 해저의 유물은 발굴 초기부터 한국은 물론 중국, 일본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뿐만 아니라 韓·中·日 삼국의 신안 해저 유물에 대한 합동 세미나를 열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좀 더 정확한 연대 추측과 국적 파악, 유물 제조의 연대와 특성 등을 밝히기 위해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 연대에 대한 궁금증은 28t이 넘는 동전의 일부가 판독됨으로 해서 元代의 지대통보(至大通寶)가 섞여 있음이 밝혀지고, 물권이나 승선권으로 생각되는 목패(木牌)에 지치삼년(至治參年)이라 새겨진 글씨로 인해서 유물 전체에 실렸던 물건의 하안 연대가 1323년이라는 결론을 얻어 냈다.

물살이 센 악조건 속에서도 9년에 걸친 발굴 작업은 1985년 10차 인양을 끝으로 마무리 지었지만 아직도 많은 양의 유물이 수장되어 있다고 한다.

인양된 무진장의 유물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도자기류로 보아 중국 元代의 중요한 수출 품목은 도자기였으며 元代는 청자에서 백자로 이행되는 시기였고 또한 청백자에서 치밀질(緻密質)백자로 넘어가는 중간적 시기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다종 다질의 도자기 중에는 지금까지 중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진귀한 것들이 상당수들이 있어 신안 해저 유물의 가치를 더욱 높여 주고 있다.

도자기 외에도 금속품, 목재품 등 각종 유물에 대한 학계와 일반인의 관심도는 대단했다.

그 중에도 침몰 선체로 쏠린 관심과 열의는 여타의 것보다 훨씬 많은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런 만큼 인양을 위한 준비 단계는 세심하고도 조심스러웠다.

선체 인양 팀은 보다 완전무결한 인양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해외 고고 조사단이 결성되어 여러 나라의 해저 선체 인양의 실례와 보존 현황을 돌아보는 열성을 보였다.

이처럼 세심한 조사와 조심스러운 준비 단계를 마친 인양 팀은 갯벌 속에서 6세기의 길고 긴 세월 동안 묻혀 있던 선체를 분해 인양하는데 성공하여 이제는 완전 복원만을 남겨 두고 있다.

문체의 첨저형(尖底型) 선박이 신안 해저에서 발굴, 인양됨으로 해서 그 동안 중국의 선박에는 평저형(平底型)만 있다는 기존의 이론을 깨트리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으며 그 동안 고대 선박에서는 찾아 보기 힘든 대형 용골이라든가 유럽 선박에서는 볼 수 없는 이중 격벽, 부재 상호간의 결합이 파도에 견딜 수 있는 이중 결합 방식을 보이고 있는 것과 같은 독특한 특징은 동양 무역 선체의 실례를 보여 주는 유일한 자료가 되고 있어 완전 복원 후에는 세계적 문화재로서 학계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늦어도 1990년까지는 복원이 가능하다는 이 보물 선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그 날렵한 몸체를 들어낼 날도 멀지 않았다.

이처럼 신안 해저에서 인양된 유물은 모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유물을 발굴·인양했다고 해서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영구적인 보존을 위해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보존 처리가 있어야 하고 시간과 역사를 아낄 줄 아는 소중한 마음이 있어야만 유물은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유물을 화폐 교환물로 생각하는 도굴 행위도 근절되어야 하지만 정부도 유물의 발굴과 보존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과거의 누적 없이는 현재도 미래도 없다. 그 때문에 신안 해저 유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